

# 이주노동자용 한국어교재들의 통사적 수준 비교 연구\*

—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김의수\*\* · 김은실\*\*\*

|| 차례 ||

-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
- II. 구문분석과 통사정보 추출
- III. 명제 차원의 복잡성과 다양성 비교
- IV. 양태 차원의 복잡성과 다양성 비교
- V. 일반목적 한국어교재 및 노동자 구어문장과의 비교
- VI.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근 국가 기관에서 범용 교재로 제작한 4종의 한국어교재들을 대상으로, 그것의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의 통사적 특성을 명제와 양태 차원의 복잡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또한 그러한 결과를 일반목적 학습자용 한국어교재들과 이주노동자들의 구어문장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4종이 가지는 수준과 한계를 짚어 볼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4종의 교재를 ‘너도’, ‘아자1’, ‘아자2’, ‘하하’로 약칭하여 나타내 보면, 우선 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양태 차원의 복잡성에서는 ‘아자2’가 가장 높은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조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생

수준에 있고 ‘아자1’이 가장 낮으며 그 사이에 단일 교재 ‘너도’와 ‘하하’가 분포하고 있다. 양태 차원의 다양성에서는 ‘하하>아자2>너도>아자1’의 순으로 나타나 ‘아자2’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일반목적 학습자용 교재와의 비교로부터 ‘아자2’는 3급, 나머지 3개 교재는 1급 교재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아자2’는 한국인 노동자 수준보다 낮고 장기 체류자 수준보다 약간 높으며, 나머지 3개 교재들은 장기 체류자보다는 현격히 낮고 단기 체류자보다는 대체로 높은 편임이 드러났다.

주제어 :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재,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특수목적 학습자, 일반목적 학습자, 해석문법, 명제, 양태, 통사적 복잡성, 통사적 다양성

##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

본고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재들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4종을 대상으로 하여 통사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고, 더 나아가 그러한 결과를 일반목적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재들 및 이주노동자들의 구어문장과의 비교해 봄으로써, 이주노동자용 한국어교재들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재는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만들어져 사용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들 가운데 최근 들어 국가 기관에서 범용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펴낸 4종의 교재, 즉 『이주노동자를 위한 하하호호 한국어』(노동부, 2008),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1』(국립국어원, 2010),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2』(국립국어원, 2011), 『고용허가제 사전취업교육 한국어교재 너도나도 한국어』(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 교재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드문 편이며, 이루어진 연구 대부분은 교재의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sup>1)</sup> 이에 본고에서는 언

어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우선 통사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용 한국어교재들을 분석하여 교재들 간의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에 이루어진 일반목적 한국어 학습자용 교재들의 등급별 수준 연구 결과 및 이주노동자들의 구어문장 수준 연구 결과와도 견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주노동자용 한국어교재가 지니는 문장 수준을 통사적 차원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재들의 통사적 수준은 명제와 양태의 복잡성과 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측정되어 비교될 것이다. 이를 위해 4종의 교재 각각에서 본문<sup>2)</sup>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추출하여 우선 4개의 원시말뭉치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통사적으로 분석하여 4개의 구문분석말뭉치를 얻는다. 그리고 구문분석말뭉치에서 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양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의 값들을 추출하여 비교하게 된다. 다음은 분석 대상이 되는 4개 텍스트의 개략적인 규모이다.

- 
- 1)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재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은 수적으로 아직 적을 뿐만 아니라 교재의 내용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적합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출간된 이주노동자용 교재들을 분석하였거나 요구조사를 통하여 어떠한 내용이 이주노동자용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전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는 장현옥(2008), 이승희·권순희(2008), 정국희(2010) 등이 있으며, 후자의 관점에서는 구민숙(2001), 추혜정(2004), 전지향(2005), 조선경(2006), 이경민(2007)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공히 이주노동자용 한국어교재의 내용적 측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외에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인 안설희(2003), 전지향(2005), 박성수(2005) 등과, 교육 방안을 연구한 김평광(2008), 곽영숙(2008) 등을 들 수 있다.
  - 2) 교재에 따라서는 ‘본문’ 외에도 ‘듣기’나 ‘읽기’ 텍스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 가운데 ‘본문’을 우선 택한 것은, 그것이 4종의 교재 모두에서 공히 발견되며 아울러 구어문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구어문장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 분석 대상 규모

- 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하하호호 한국어』(2008), 이후 ‘하하’로 약칭  
 ⇒ 본문(총 24과): 총 986개 절(모문 687개, 내포문 299개)
- 나.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1』(2010), 이후 ‘아자1’로 약칭  
 ⇒ 본문(총 15과): 총 157개 절(모문 121개, 내포문 36개)
- 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2』(2011), 이후 ‘아자2’로 약칭  
 ⇒ 본문(총 18과): 총 309개 절(모문 167개, 내포문 142개)
- 라. 『고용허가제 사전취업교육 한국어교재 너도나도 한국어』(2011), 이후 ‘너도’로 약칭  
 ⇒ 본문(총 38과): 총 457개 절(모문 357개, 내포문 100개)

## II. 구문분석과 통사정보 추출

교재의 통사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텍스트를 우선 원시말뭉치로 구축하고 그것을 다시 통사적으로 분석하여 구문분석말뭉치로 변환해야 한다. 이때 통사 분석의 틀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해석문법을 원용하였다.<sup>3)</sup> 다음은 해석문법에서 설정한 문장 구성 요소들이다.

## (2) 해석문법의 기본 체제

- 가. 독립성분: 독립어(J)
- 나. 명제성분: 주어(A), 목적어(B), 보어(C), 부사어(D), 서술어(E)
- 다. 양태성분: 시제(T), 상(S), 높임(H), 태도(M), 종결(N), 부호(P)
- 라. 기타성분: 직접인용(Q), 문법기능이 없는 명사구(X)

3) 해석문법은 문장의 통사정보를 선형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하여 대규모 구문분석말뭉치를 구축, 이로부터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추출하여 텍스트들 간의 통사적 난이도를 수치상으로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론이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되었다. 해석문법의 기본 원리와 체제, 이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한국어교육 차원의 다양한 연구들의 흐름에 관해서는 최근 김의수(2012)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들 통사정보 가운데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측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2나)의 명제성분과 (2다)의 양태성분이다. 다음은 이들을 통해 문장을 분석한 것이다.

### (3) 문장 분석의 예

가. 멋진 비행기가 방금 남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나.  $A_{6-1-1}(E_{31-2}T_5)DC_{0-1-4}E_{12-5}E_{6-1}T_1S_1H_6N_1P_1$

다. 모문  $\Rightarrow A_{6-1-1}DC_{0-1-4}E_{12-5}E_{6-1}T_1S_1H_6N_1P_1$

라. 내포문  $\Rightarrow$  관형사절:  $(E_{31-2}T_5)$

문장 (3가)는 관형사절로 된 관형어를 가진 주어 ‘멋진 비행기가’와 부사로 된 부사어 ‘방금’,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보어 ‘남쪽으로’와 자동사 2차 리 서술어인 본용언 ‘날아가’와 보조용언 ‘버렸다’로 구성된다. (2나)에 입각하여 이들 명제 차원의 문장성분 정보를 순서대로 표시하면 ‘ADCEE’가 된다. 이러한 명제성분들과 더불어 (3가)에 들어 있는 양태성분으로는 시제(T,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 상(S, 완료상 ‘-어 버리-’), 높임(H, 청자높임 중 해라체), 종결(N, 평서법), 마침표(P, 온점) 등이 있다. 명제성분들에 이러한 양태성분들까지 더하면 ‘ADCEETSHNP’가 된다. 여기에 다시 각각의 문장성분들 내부의 미시적인 통사정보를 숫자로 표시해 주면 (3나)와 같은 최종 결과물을 얻는다.<sup>4)</sup> 이때 괄호는 내포문을 의미하는데, 문장 (3가)의 경우에는 관형사절로 된 1차 내포문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어

4) 이해를 돕기 위해 주어에 관한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멋진 비행기가’인데  $A_{6-1-1}(E_{31-2}T_5)$ 로 표시된다. ‘ $A_{6-1-1}$ ’에서 첫 번째 숫자 ‘6’은 관형어 정보(관형사절)를, 두 번째 숫자 ‘1’은 주어 명사구의 핵이 ‘보통 명사’임을, 세 번째 숫자 ‘1’은 거기에 주격조사 ‘이/가’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A_{6-1-1}$ ’ 뒤에 있는 ‘ $(E_{31-2}T_5)$ ’는 수식어 관형사절의 내부 정보를 나타내며 이때 괄호는 그것이 내포절임을 뜻한다. 여기서 E에 붙어 있는 ‘31-2’라는 숫자 배열은 ‘형용사/1차 리-관형사형어미’를 뜻하며, ‘ $T_5$ ’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쓰였음을 표시해 주고 있다.

주고 있다. 내포절만을 따로 표시해 본 것이 (3라)이며, 이들을 제외한 모 문 성분은 (3다)와 같다.

이러한 통사분석을 거치게 되면 원시말뭉치는 구문분석말뭉치로 변환 된다. 다음은 4종의 이주노동자용 한국어교재들 가운데 ‘아자2’의 3과 본문 텍스트의 원시말뭉치와 구문분석말뭉치를 예시한 것이다.

(4) ‘아자2’의 3과 본문 원시말뭉치

- 1K1102030101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1K1102030102먼저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1K1102030103설명이 좀 빠르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1K1102030104자, 다시 들어 보세요.  
 1K1102030105부품을 조립하는데 잘 안 돼요.  
 1K1102030106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세요.  
 1K1102030107오늘 처음 일을 했는데 어때요?  
 1K1102030108조금 힘든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5) ‘아자2’의 3과 본문 구문분석말뭉치

- 1K2102030101D(D<sub>6-1-4</sub>(B<sub>0-1-2</sub>E<sub>422<0-1-0></sub>E<sub>8-4</sub>)B<sub>0-5-2</sub>E<sub>22-3</sub>)E<sub>11-198</sub>H<sub>8</sub>M<sub>1</sub>N<sub>2</sub>P<sub>2</sub>  
 1K2102030102D(D(DB<sub>0-1-2</sub>E<sub>23-3</sub>)B<sub>0-1-2</sub>E<sub>422<0-1-0></sub>E<sub>8-3</sub>)E<sub>11-198</sub>H<sub>8</sub>M<sub>1</sub>N<sub>1</sub>P<sub>1</sub>  
 1K2102030103D(A<sub>0-1-1</sub>DE<sub>31-3</sub>)DE<sub>23-5</sub>E<sub>6-198</sub>H<sub>18</sub>M<sub>5</sub>N<sub>3</sub>P<sub>1</sub>  
 1K2102030104JDE<sub>22-5</sub>E<sub>6-198</sub>H<sub>18</sub>M<sub>4</sub>N<sub>3</sub>P<sub>1</sub>  
 1K2102030105D(B<sub>0-1-2</sub>E<sub>422<0-1-0></sub>E<sub>8-3</sub>)DDE<sub>12-198</sub>H<sub>8</sub>M<sub>7</sub>N<sub>1</sub>P<sub>1</sub>  
 1K2102030106B<sub>6-3-2</sub>(A<sub>0-4-1</sub>E<sub>22-2</sub>T<sub>6</sub>)D(E<sub>22-3</sub>)E<sub>22-198</sub>H<sub>18</sub>N<sub>3</sub>P<sub>1</sub>  
 1K2102030107D(DD<sub>0-1-0</sub>E<sub>411<0-1-2></sub>E<sub>8-3</sub>T<sub>1</sub>)E<sub>31-198</sub>H<sub>8</sub>N<sub>2</sub>P<sub>2</sub>  
 1K2102030108D(DE<sub>31-3</sub>)D(E<sub>31-3</sub>)E<sub>31-198</sub>H<sub>8</sub>N<sub>1</sub>P<sub>1</sub>

(5)로부터 명제와 양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추출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앞서 분석한 문장 (3)을 통해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5)

## (6)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추출하기

가. 구문분석말뭉치:

$$A_{6-1-1}(E_{31-2}T_5)DC_{0-1-4}E_{12-5}E_{6-1}T_1S_1H_6N_1P_1$$

나. 모문과 내포문 분리하기

- 모문  $\Rightarrow A_{6-1-1}DC_{0-1-4}E_{12-5}E_{6-1}T_1S_1H_6N_1P_1$

- 내포문  $\Rightarrow$  1차 내포문(관형사절):  $E_{31-2}T_5$

다. 명제성분과 양태성분 분리하기

- 모문  $\Rightarrow$  명제성분:  $A_{6-1-1}DC_{0-1-4}E_{12-5}E_{6-1}$

- $\Rightarrow$  양태성분:  $T_1S_1H_6N_1P_1$

- 내포문  $\Rightarrow$  명제성분:  $E_{31-2}$

- $\Rightarrow$  양태성분:  $T_5$

라. 정보의 단순화, 생략된 성분 복원, 다양성과 복잡성 값 산출<sup>5)</sup>• 모문  $\Rightarrow$  명제성분:

$$A_{6-1-1}DC_{0-1-4}E_{12-5}E_{6-1} \Rightarrow ADCE_{12-5}E$$

$$\Rightarrow ADCEE \Rightarrow ACDEE$$

$$\Rightarrow \text{거시유형 [ACE]의 미시유형 ACDEE}$$

$\therefore$  복잡성: 9점, 다양성: 미시유형 1개

$\Rightarrow$  양태성분:

$$T_1S_1H_6N_1P_1 \Rightarrow TSHN$$

$$\Rightarrow \text{거시유형 [TSHN]의 미시유형 TSHN}$$

$\therefore$  복잡성: 10점, 다양성: 미시유형 1개

• 내포문  $\Rightarrow$  명제성분:

$$E_{31-2} \Rightarrow AE_{31-2} \Rightarrow AE$$

$$\Rightarrow \text{거시유형 [AE]의 미시유형 AE}$$

5) 해석문법에 의해 구축된 구문분석말뭉치로부터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추출하는 것에 관해서는 김의수(2009, 2010)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다.

6)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 값은, 명제 차원과 양태 차원 각각에 존재하는 문장 유형 위계들로부터 얻어진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이미 김의수(2010:77-80)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므로 내용의 중복 기술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의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복잡성: 1점, 다양성: 미시유형 1개

⇒ 양태성분:

T<sub>5</sub> ➡ T ➡ 거시유형 [T]의 미시유형 T

∴복잡성: 1점, 다양성: 미시유형 1개

• 한 문장 전체(모문+내포문)

⇒ 명제성분: 복잡성 10점, 다양성: 미시유형 2개

⇒ 양태성분: 복잡성 11점, 다양성: 미시유형 2개

분석된 결과로부터, 문장 (3가)는 1개의 모문과 1개의 내포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명제 차원의 다양성에서 그것은 거시유형 [ACE]와 [AE]에 속하는 ACDEE와 AE라는 2개의 미시유형을 지니며, 복잡성에서 모문이 9점, 내포문이 1점으로, 문장 전체로는 도합 10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양태 차원의 다양성에서 그것은 거시유형 [TSHN]과 [T]에 속하는 2개의 TSHN과 T라는 미시유형을 지니며, 복잡성에서 모문이 10점, 내포문이 1점으로, 문장 전체로는 도합 11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5)의 ‘아자2’의 3과 본문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아자2’의 3과 본문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가. 모문 ⇒ 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①복잡성: 총 54점 ÷ 8개 문장 = 한 문장당 평균 6.75점

②다양성: 미시유형 6개

⇒ 양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①복잡성: 총 39점 ÷ 8개 문장 = 한 문장당 평균 4.88점

②다양성: 미시유형 2개

나. 내포문 ⇒ 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①복잡성: 총 68점 ÷ 8개 문장 = 한 문장당 평균 8.5점

②다양성: 미시유형 8개

⇒ 양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①복잡성: 총 2점 ÷ 8개 문장 = 한 문장당 평균 0.25점

②다양성: 미시유형 1개

다. 한 문장 전체(모문+내포문)

⇒ 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①복잡성: 총 122점 ÷ 8개 문장 = 한 문장당 평균 15.25점

②다양성: 미시유형 11개

⇒ 양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①복잡성: 총 41점 ÷ 8개 문장 = 한 문장당 평균 5.13점

②다양성: 미시유형 3개

분석 (7)은 8개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텍스트가 지니는 평균적인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측정해 놓은 것이다.<sup>7)</sup> 그로 인해, 명제와 양태 차원에서 얻어진 복잡성 수치들을 문장 전체의 개수인 8로 나누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다양성 산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통사적 다양성이란 하나의 텍스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장 유형이 출현하고 있느냐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미시유형의 개수 자체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 Ⅲ. 명제 차원의 복잡성과 다양성 비교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이주노동자용 한국어교재 4종의 본문 텍스트들을 분석하였다.<sup>8)</sup> 이제 그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교재들이 보이는 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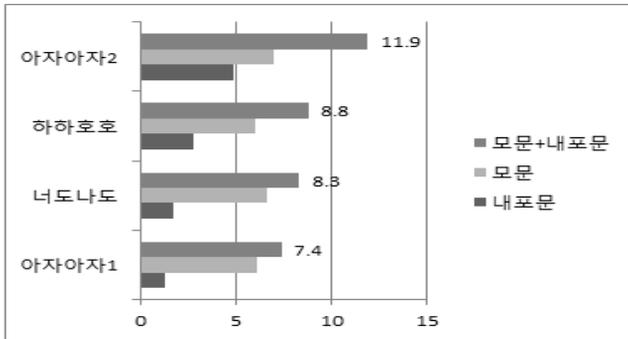
7)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해석문법 구문분석말뭉치로부터 자동적으로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다.

8) 분석 사례 (7)에서는 ‘아지’의 3과를 가지고 예시를 하였지만, 4종의 교재를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교재 전체를 하나의 단일 텍스트로 구성하여 복잡성과 다양성을 추출하였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한 까닭은 각각의 본문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

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명제 차원과 양태 차원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차례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측정 결과를 가지고 4종의 교재들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4개 교재 간의 명제 차원의 복잡성을 비교해 본 것이다.

(8) 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 비교: 아자2)하하≒너도≒아자1



하나의 문장은 그것이 단문(simple sentence)일 경우 모문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확장을 겪은 복문(complex sentence)일 경우 하나 이상의 내포문을 지니게 된다.<sup>9)</sup> (8)은 4개 교재의 본문들을 구성하는 평균적인 문장 하나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문과 내포문의 평균적인 모습을 함께 보이

과를 모아 평균을 내어 교재 전체의 값으로 제시할 경우, 자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성의 경우 동일한 유형이 여러 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그것은 교재 차원에서는 한 개 미시유형에 불과한 것인데 각 과별로 합산을 할 경우 모두 다른 미시유형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교재의 모든 본문을 모아 하나의 텍스트로 구성한 다음에 복잡성과 다양성을 측정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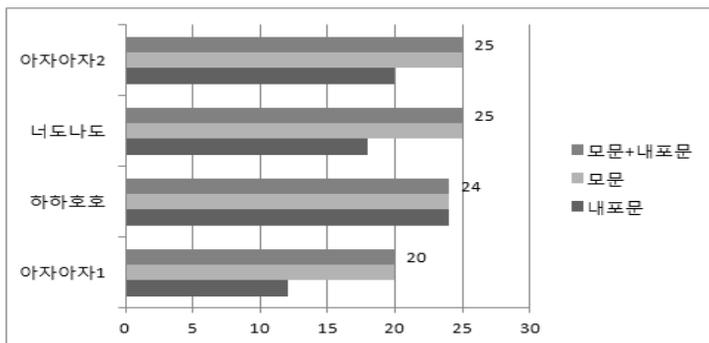
9) 해석문법에서는 문장 확장 기제인 ‘접속’과 ‘내포’ 가운데 오로지 후자만 인정하고 있다. 접속절을 모두 부사절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복합문은 모문과 내포문의 결합이라고 정의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의수(2008:19)를 참고하기 바란다.

며 비교한 것이다.<sup>10)</sup>

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 순위는 ‘아자2>하하=너도=아자1’로 집계된다.<sup>11)</sup> 즉, ‘아자2’와 다른 세 교재로 이분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자2’가 ‘아자1’보다 상위 등급의 교재로 제작되어 초보적인 수준을 다시 다룰 필요가 없었던 데 비해, 단일 교재로 만들어진 ‘하하, 너도’는 초보적인 수준부터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4개 교재 간의 명제 차원의 다양성을 비교해 본 것이다.

(9) 명제 차원의 통사적 다양성 비교: 아자2=너도>하하>아자1



그래프 (9)는 교재들 본문에 출현한 문장의 미시유형 개수를 세어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는 ‘아자2=너도>하하>아자1’이다. 이러한 다양성 순위

10) 이렇게 모문, 내포문, 문장 전체(모문+내포문)로 나누어 비교하면 4종의 교재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더욱 더 잘 드러나게 된다. 즉, (8)에서 교재들 간의 차이는 모문이 아니라 내포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1) 교재들 간의 순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석문법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위계에서는 등급 간의 차이를 1점씩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텍스트들 간의 차이가 1점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에만 위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간극이 1 미만이면 위계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른 표시는 다음과 같다. 예1) A: 12점, B: 12점 → A=B, 예2) A: 12점, B: 11.7점 → A≐B, 예3) A: 12점, B: 11점 → A>B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의 총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출현하는 문장이 많아질수록 문장 유형도 그만큼 더 다양해질 것이라는 가정이다.

(10) 본문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총 문장 개수

가. ‘아자2’: 167개, ‘너도’: 357개, ‘하하’: 687개, ‘아자1’: 121개

나. 순위: 하하>너도>아자2>아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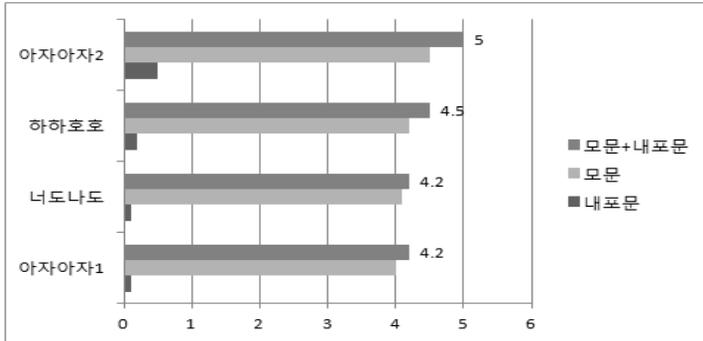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은, 문장 개수와 문장 유형의 다양성이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문장 수로만 따지면 ‘하하’가 수위를 차지해야 하는데 그것의 24% 정도의 문장들로 채워져 있는 ‘아자2’나 52% 정도의 문장들로 구성된 ‘너도’가 ‘하하’보다 더 다채로운 문장 유형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하하’에 비해 ‘아자2’와 ‘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 문장 유형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 명제 차원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관찰해 보았는데 그 결과, ‘아자2’가 가장 수준이 높고 ‘아자1’이 가장 낮으며, 그 사이에 단일 교재 ‘너도’와 ‘하하’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V. 양태 차원의 복잡성과 다양성 비교

다음으로 양태 차원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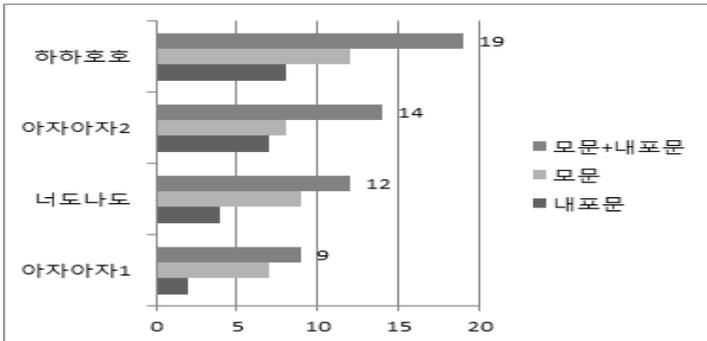
(11) 양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 비교: 아자2≒하하≒너도≒아자1



양태 차원의 복잡성 순위는 ‘아자2≒하하≒너도≒아자1’로 집계되며, 이는 명제 차원의 복잡성 위계인 ‘아자2>하하≒너도≒아자1’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자2’와 ‘하하’의 격차가 명제 차원보다 양태 차원에서 다소 줄어들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양태 차원의 다양성 순위는 다음과 같다.

(12) 양태 차원의 통사적 다양성 비교: 하하>아자2>너도>아자1



양태성분의 미시유형 개수를 세어 본 결과 ‘하하>아자2>너도>아자1’의

순위로 집계가 되었다.

- (13) 본문 텍스트의 총 문장 개수와 양태적 다양성 간의 비교  
 가. ‘하하’: 687개, ‘너도’: 357개, ‘아자2’: 167개, ‘아자1’: 121개  
 나. 문장 개수의 총량 순위: 하하>너도>아자2>아자1  
 다. 양태적 다양성 순위: 하하>아자2>너도>아자1  
 라. 참고: 명제적 다양성 순위: 아자2=너도>하하>아자1

문장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하하’는 앞서 명제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저조한 모습이었으나 양태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더 이상 문제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다. 이번엔 오히려 ‘아자2’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문장들을 가지고 매우 다채로운 명제 유형들을 선보였으나 양태 차원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교재가 명제 차원과 양태 차원에서 고른 모습을 보인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아자2’는 양태 차원을 보장하여 복잡성 차원에서처럼 ‘하하’ 이상의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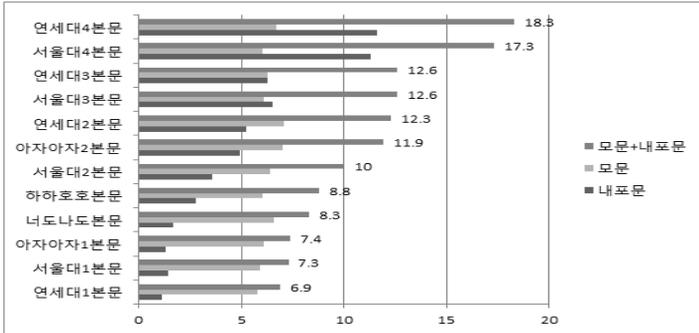
## V. 일반목적 한국어교재 및 노동자 구어문장과의 비교

이상의 논의는 이주노동자용 한국어교재에 관한 내적 비교 연구이다. 이제 외적 비교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비교 대상은 일반목적 학습자용 한국어교재들이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 교

12) 해석문법에 의거한 구문분석말뭉치에서는 어떠한 텍스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이는지를 손쉽게 찾아 해당 문장을 수정하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해석문법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

재가 일반목적 학습자용 교재의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4) 일반목적 한국어교재와의 비교 결과(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 기준)<sup>13)</sup>



주지하다시피 연세대와 서울대 교재에서 1권은 언어숙달도 1급을, 2권은 2급을, 3권은 3급을, 4권은 4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주노동자용 교재들이 각각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위 그래프에서 이주노동자용 교재와 두 대학 교재 간의 비교 결과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13) 정한네(2010)에서는 해석문법에 입각하여 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 관점에서, 대표적인 일반목적 학습자용 교재들 가운데 하나인 『연세 한국어』(1~4권)과 서울대 『한국어』(1~4권)를 분석 및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연구에서는 각 과를 구성하는 텍스트를 본문, 듣기, 읽기로 나누어 언어숙달도별, 텍스트 장르별로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교재를 대조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정한네(2010:51, 67)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결과값들의 수치와 본고의 4장에서 도출한 결과값들의 수치를 직접 대조해 봄으로써 이주노동자용 교재들의 본문과 일반목적 학습자용 교재들의 본문을 명제의 통사적 복잡성 차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정한네의 동의 하에 진행된 것임을 밝힌다.

14) 이후부터는 ‘서울대 『한국어』 1권’ 본문을 ‘서울1’과 같이 간략히 나타내기로 한다.

## (15) 이주노동자용 교재와 일반목적 학습자용 교재 간 비교

## 가. 서울대 『한국어』 본문과의 비교

서울4>서울3≒아자2>서울2>하하≒너도≒아자1≒서울1

☞ 서울3 ≒ 아자2, 하하/너도/아자1 ≒ 서울1

## 나. 『연세 한국어』 본문과의 비교

연세4>연세3≒연세2≒아자2>하하≒너도≒아자1≒연세1

☞ 연세3≒연세2 ≒ 아자2, 하하/너도/아자1 ≒ 연세1

## 다. 종합

연세4>서울4>연세3=서울3≒연세2≒아자2>서울2>하하≒너도≒아자1≒서울1≒연세1

☞ 서울3 ≒ 연세2 ≒ 아자2, 하하/너도/아자1 ≒ 서울1 ≒ 연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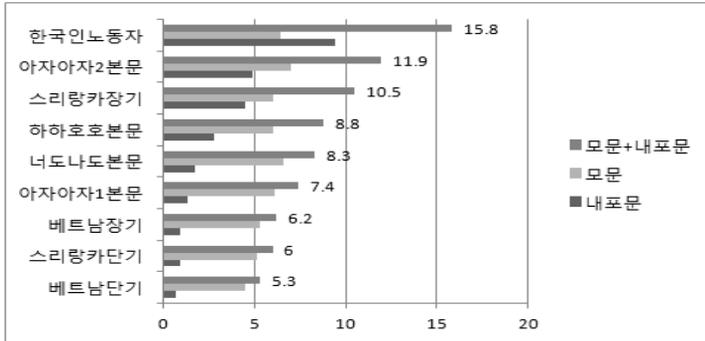
이주노동자용 교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는 ‘아자2’는 서울대 『한국어』와 비교했을 경우 3급 교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나머지 3개 이주노동자용 교재는 1급 교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연세 한국어』와의 비교에서 ‘아자2’는 2급 교재와, 나머지 3개 교재는 1급 교재와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5다)에서처럼 두 대학 교재들과 동시에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는, ‘아자2’는 서울대 3급 교재 및 연세대 2급 교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연세2’의 경우 ‘연세3’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sup>15)</sup>, ‘아자2’는 대체로 언어숙달도 3급 정도 수준의 교재와 비견될 만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나머지 3개의 이주노동자용 교재들은 공히 1급 교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구어문장 수준과 이주노동자용 교재 간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다.<sup>16)</sup>

15) 『연세 한국어』만 놓고 볼 때, 2급 교재의 복잡성이 지나치게 높아서 1급 교재와의 격차가 너무 크고 3급 교재와는 거의 변별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정한네, 2010:73)

16) 손현화(2011)에서는 베트남과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체류 기간에 따라 다시

## (16) 이주노동자 구어문장과의 비교 결과(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 기준)



노동자들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내외국인들로서 편의상 한국인 노동자를 ‘한노’, 베트남 단기 체류 노동자를 ‘베단’ 등으로 나타내어 보기로 한다.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복잡성 순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 한노>아자2>스장>하하≒너도≒아자1>베장≒스단≒베단<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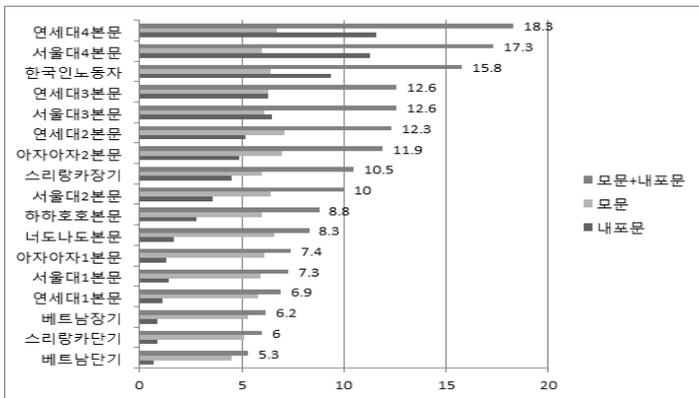
단기(2년 정도)와 장기(4년 6개월 정도)로 나누어 그들의 구어문장(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자유로운 발화)을 채록하고 해석문법으로 분석하여 명제와 양태의 통사적 복잡성 차원에서 네 가지 그룹(베트남-단기, 베트남-장기, 스리랑카-단기, 스리랑카-장기)을 비교하였다. 본고에서는 손현화(2011:38~43)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결과값들의 수치와 본고의 4장에서 도출한 결과값들의 수치를 직접 대조해 봄으로써 명제의 통사적 복잡성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용 교재들의 본문과 이주노동자들의 구어문장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용 교재 본문은 대화 형식으로 서 구어문장의 속성을 강하게 지니므로 이 둘은 충분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손현화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다.

17) 손현화(2011:42)에서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경우 체류 기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통사적 복잡성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이유로 한국어와는 판이하게 다른 베트남어의 언어유형론적 특성을 들고 있다. 즉, 베트남어는 SVO 어순을 가진 고립어로서 한국어의 어순과도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착어로서의 한국어에 존재하는 조사나 어미의 존재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자2’는 한국인 노동자 수준보다 낮고 스리랑카 장기체류자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있다. 나머지 3개 교재인 ‘하하=너도=아자1’는 스리랑카 장기체류자 수준보다는 현격히 낮지만 단기 체류자들의 수준보다는 대체로 높다. 따라서 장기 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아자2’만이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3개 교재는 단기 체류자들의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이주노동자용 한국어교재를, 일반목적 학습자용 한국어교재와 이주노동자 구어문장들과 비교해 보았다. 이제 이들을 한데 모아 봄으로써 전체적인 조망을 해 보면서 본 장의 논의를 맺고자 한다.

(18) 일반목적 학습자용 교재 및 구어문장과의 동시 비교



위 그래프에 나타나는 순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종합적 비교

가. 전체 비교:

연세4>서울4>한노>연세3=서울3=연세2=아자2>스장=서울2>하하=너도=아자1=서울1=연세1=베장=스단=베단

나. ‘연세2’와 ‘배장’ 제외한 나머지 비교:

연세4>서울4>한노>연세3=서울3≒아자2>스장≒서울2>하하≒너도  
 ≒아자1≒서울1≒연세1≒스단≒배단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연세2’와 ‘배장’을 제외하면 (19나)를 얻을 수 있는데, 한국어교육 대상자인 이주노동자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한다면, 장기 체류자일 경우에는 특수목적 교재인 ‘아자2’와 일반목적 교재인 ‘연세3’이나 ‘서울3’이 교재로서 가능해 보이며, 단기 체류자들에게는 ‘하하, 너도, 아자1’과 ‘서울2’가 교재로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VI. 맺음말

본고는, 국가 기관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용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들어 제작한 4종의 특수목적 한국어교재들을 대상으로, 그것의 본문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들의 통사적 특성을 명제와 양태 차원의 복잡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비교해 보았다. 아울러 그러한 관찰 결과를 기존에 이루어진 일반목적 학습자용 한국어교재들과 이주노동자들의 구어문장 연구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4종이 가지는 수준과 한계를 짚어 볼 수 있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확인되거나 새롭게 얻어진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제 차원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차원에서는 ‘아자2’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 ‘아자1’이 가장 낮으며 그 사이에 단일 교재 ‘너도’와 ‘하하’가 분포하고 있다. 둘째, 특히 명제의 다양성 차원에서 ‘아자2’와 ‘너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문장들을 가지고서도 매우 다양한 문

장 유형들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하하’는 비교적 단조로운 문형들만으로 매우 많은 문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양태 차원의 복잡성 순위는 명제 차원의 복잡성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넷째, 그러나 양태 차원의 다양성에서는 ‘하하>아자2>너도>아자1’의 순이다. 이를 통해 ‘아자2’가 양태의 다양성 차원에서 보장되어 ‘하하’ 이상의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었다. 다섯째, 명제의 복잡성 차원에서 일반목적 학습자용 교재와 비교해 볼 때 ‘아자2’는 3급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며, 나머지 3개 교재는 1급 교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명제의 복잡성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구어문장과 비교해 보면, ‘아자2’는 한국인 노동자 수준보다 낮고 장기 체류자 수준보다 약간 높으며, 나머지 3개 교재들은 장기 체류자보다는 현격히 낮고 단기 체류자보다는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장기 체류 이주노동자에게는 ‘아자2’와 ‘연세3’, ‘서울3’이, 그리고 단기 체류 이주노동자에게는 ‘하하, 너도, 아자1’과 ‘서울2’가 사용 가능한 교재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문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이제 본고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논의들을 언급함으로써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본고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통사적 차원에 국한하여 이주노동자용 한국어교재들을 분석하고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언어적 차원의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즉, 어휘적 차원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들에 관해 조금 더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통사적 차원에서도 더욱 다양한 세부적 연구가 가능하다. 본고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지만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가는 내포문의 다양한 차수와 종류,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명사구의 복잡성과 다양성 등이 당장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4종의 교재들에는 본문 이외의 텍스트, 즉 듣기와 읽기 텍스트가 아울러 존재한다. 4종

모두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재를 구성하는 모든 텍스트 유형들을 분석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교재 안에서의 텍스트 간 균질성과 차별성을 매우 미시적으로 고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5장에서 언급된 일반목적 학습자용 교재와 이주노동자 구어문장과의 비교는 명제의 통사적 복잡성에 국한된 것이었다. 명제 차원의 다양성이나 양태 차원의 복잡성, 다양성 차원이 보장된다면 더욱 정밀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이주노동자용 교재들에 대한 이와 같은 언어학적 연구는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재를 구성하는 내용적 측면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는 비록 언어 형식적 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담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교재 선택과 제작에 필수적으로 참고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재의 언어 형식과 내용에 관한 균형 있는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질 때 이주노동자를 위한 최적의 교재가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사전취업교육 한국어교재 너도나도 한국어』,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
- 국립국어원,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1』, 2010,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2』, 2011, 국립국어원.
- 노동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하하호호 한국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008.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 2. 논문

- 곽영숙,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우리말교육 현장연구』 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08, p.293-342.
- 구민숙,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교재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명광,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p.489-508.
- 김의수, 『문장은 내심적인가 외심적인가』, 『국어학』 49, 국어학회, 2007, p.107-138.
- \_\_\_\_\_, 『환언관계 속담들의 통사구조 비교』,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2007, p.405-436.
- \_\_\_\_\_, 『문장의 구조와 해석문법』,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2008, p.5-35.
- \_\_\_\_\_, 『문장의 구조와 복잡성』, 『한국중원언어학회 2009 봄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2009, p.91-103.
- \_\_\_\_\_, 『문장 구조의 다양성과 복잡성』, 『시학과언어학』 19, 시학과언어학회, 2010, p.67-97.
- \_\_\_\_\_, 『해석문법과 한국어교육 연구』, 『제16차 추계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2, p.13-31.
- 김의수·김태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교재의 문장 분석』, 『언어학연구』 14, 한국중원언어학회, 2009, p.39-67.
- 김의수·손현화,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구어 문장이 지닌 통사적 복잡성과 그 한계』,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2011, p.111-140.

- 김의수·양지연, 「국어교육 교재와 한국어교육 교재 간의 접점 연구-문장의 통사론적 난이도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2010, p.139-171.
- 김의수·이로사, 「교육과정에 따른 문장의 다양성과 복잡성 추이-중학교 1-1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학』 69, 한국언어문학회, 2009, p.83-115.
- 김의수·정은주, 「TOPIK 읽기 영역 지문의 난이도와 균질성에 관한 통사론적 접근」, 『한국언어문학』 71, 한국언어문학회, 2009, p.189-213.
- 김의수·정한네, 「한국어 교재를 구성하는 텍스트의 통사론적 난이도와 균질성 연구」, 『어문론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p.189-213.
- 김정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분석」, 『이중언어학』 제30호, 이중언어학회, 2006, p.77-112.
- 김태성, 「해석문법을 통한 한국어 학습 교재의 문장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박성수,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내용 선정을 위한 요구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손현화, 「스리랑카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문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안설희,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경민,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위한 취업 전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승희·권순희, 「외국인 근로자 교재 제작」, 『우리말교육현장연구』 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08, p.303-333.
- 임승선, 「이주노동자 대상 취업 전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장현옥,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문화 교재 모형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전지향,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과제 선정 및 실제 자료 구축」,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정국희,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재 분석」,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정한네, 「한국어교재의 통사론적 난이도 연구: 서울대 『한국어』와 『연세한국어』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조선경,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7, 한국어교육학회, 2006, p.255-279.

추혜정,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교재 구성을 위한 학습자 요구 조사: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Abstract**

A study on comparing four Korean textbooks for migrant workers  
from the syntactic point of view  
-focusing on syntactic complexity and diversity-

Kim, Ui-su & Kim, Eun-sil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ublished four Korean textbooks for migrant workers. In this paper they are called by squeezed forms like *HAHA*(2008), *AJA-1*(2010), *AJA-2*(2011) and *NEODO*(2011). We compared them in four dimensions; i) syntactic complexity in proposition, ii) syntactic diversity in proposition, iii) syntactic complexity in modality, iv) syntactic diversity in modality. It was concluded that the hierarchy in i)~iii) is *AJA-2* > *NEODO* > *HAHA* > *AJA-1*. However, that of in iv) has different order: *HAHA* > *AJA-2* > *NEODO* > *AJA-1*. This means that *AJA-2* must be revised more difficult than *HAHA* in terms of syntactic diversity in modality. Comparing four textbooks with those for learners with general purposes and migrants' spoken sentences it is concluded that *AJA-2* belongs to the level 3 which is suitable for migrant workers with long stay and the others to the level 1 suitable for those with short stay.

Key-words: migrant workers, Korean textbooks, Korean language learners with specific purposes, Korean language learners with general purposes, Analytic grammar, proposition, modality, syntactic complexity, syntactic diversity

김의수

소속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조교수

주소 :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화번호 : 010-9105-9701

전자우편 : keysyntax@hufs.ac.kr

김은실

소속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주소 :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화번호 : 010-5613-8411

전자우편 : koreanteacher@hufs.ac.kr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4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